

오피니언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사회봉사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미국 평화봉사단 '피스코'는 미국인 개발도상국에 와서 현신하고 봉사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한 단체로서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창설한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대졸 청년들에게 2년간 개발도상국에 가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봉사하며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정으로 이 사업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대졸자들에게 개도국에 가서 자기 전공분야의 기술을 지도하고, 현지인이 미국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며, 한편으로 미국인도 상대국 외국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다목적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어 세계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업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 창설 이래 피스코는 세계 140개국에서 20만명 이상의 봉사자를 배출한다. 한국에도 1960년대부터 많은 피스코 단원들이 과연 나와 전국 각지에서 어학교육과 문화봉사활동 등을 펼쳐 '착한 미국인, 고마운 미국인'이라는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피스코 사업에 4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피스코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도입한 국내판 봉사 사업이 '아메리코(Ameri-

Corps)'이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지역사회 봉사단'을 설립한 이래 아메리코는 교육, 공공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가고 있다. 허리케인 피해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하는 봉사자도 주로 이들이다.

아메리코는 미국인들에게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라는 것, 그것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 미망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받으며 매년 8만 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기관에 취업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지도자로 성장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업경비와 제재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외에도 봉사기간이 끝난 청년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는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이 있다. 2011년부터 전남도와 경기도에서 활동을 시작한 사업이다. 이제 막 시작하여 규모가 700명 수준이고, 사업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나 매우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목포·신안, 무안 등 도서·벽지, 교통 오지지역의 빈곤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정서 지원,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등 봉사업무를 한다.

또한 재가장애인 지원, 학업 중단 청소년 멘토링, 이주여성과 아동 지원 등 국가에서 수행할 봉사활동을 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9개월 정도의 봉사활동 (대부분 시간제이며, 일부만 전일제로 근무)을 마치면 200~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0~20일의 해외봉사 기회를 준다.

몇 년 전에 이집트 룩소르에 갔을 때 그곳에서 봉사활동하는 한국 청년을 6명이나 만나 놀랄 적이 있다. 남성 2명과 여성 4명인 이들은 컴퓨터 등 기술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하며 1년 정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협력단의 지원사업으로 1년간 체제한다고 한다.

이들은 현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는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해외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뛰어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해외 봉사활동도 늘어나야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외국에서 막땅한 봉사활동 기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국내에서의 봉사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 지

역사회에 대한 봉사기회를 갖도록 촉구하고 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되며, 사회통합이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과제이다.

1~2년간의 봉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에 전일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경력도도 도움이 되고 국가와 사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이면서 바로 청년일자리 대책이다.

사회복지 확대와 일자리 대책으로서 디자인 효과를 갖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서로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두 정책을 연계해야 재원확대가 쉬워진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기 전공과 관련한 현장 경력을 쌓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추후의 교육을 위한 학비도 저축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예산과 내용을 확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아메리코 올해 예산이 10억 달러에 달하며 공화당, 민주당 등의 정파에 관계없이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

〈한양대 석좌교수〉

종교칼럼



일담

욕망의 시대, 묘향대를 생각한다

서인지 유독 공부욕심이 많았던 스님은 묘향대에서 10년 수행을 결심한다. 그 스님에게는 큰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인연은 어떻게 쉽게 끊으려면 끊을 수 없었던지 두 아이가 가끔씩 아버지를 불러 묘향대에 오르곤 했었다.

겨울철의 묘향대는 눈이 내리면 산길이 끊어져 버린다. 묘향대에 사는 스님에게 겨울철은 그야말로 절대의 고독과 마주 앉아 내면으로 내면으로 끊임없이 침잠해 들어가는 계절이다. 혹여 감기라도 걸리면 누구 하나 보살펴 주는 이 없는 산중의 토굴이기에 어떻게든지 아프지 않기 위해 몸을 보호하는 게 큰일이다.

그렇게 한철 봄은 같았어도 내 안의 자유는 자꾸자꾸 자리 진리의 열망과 함께 자신을 불태운다고 한다.

봄이 되어 뜻 생명이 다시 숨을 내쉴 때 끊어졌던 산길도 수줍은 듯 조금씩 문을 연

다. 그제서야 봄 식량을 구하러 산길을 더듬더듬 흔적을 틋아 내려가던 스님은 천둥 같은 충격에 휩싸인다. 자신의 아이들이 산길에서 일어 죽어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해 겨울 두 아이가 아버지를 본다면 산에 올라서 길을 잊고 혼다 손을 꼭 꾹 얹어 죽은 것이다. 자식들의 주검을 발견한 스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호통불빛 아래에서 스님의 눈동자만 파랗게 빛난다.

'내가 등산객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 같은 일이 또 생길까 그런 것이다. 청년도 내일 일찍 내려가게' 말하면서 돌아앉는 스님의 모습은 한없이 냉정하다. '아이를 잃은 그 스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웃는 스님의 모습에 더러며 리 총각은 더 많은 질문을 삼키고 말았다. 그리고 온통 궁금한 것이 머릿속에 꽂 차 있는데

도 그냥 고개가 끄떡끄떡 거려 지더라도. 왠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스님들이 수행하며 사는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음날 이른 새벽 지리산에 내려온 구름바다를 바라보니 조금 남아있던 의문도 구름처럼 흩어져버린다. 그 하룻밤 인연으로 더 벅머리 총각도 출가해서 세상을 떠는 수행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리산에는 묘향대 같은 토굴이 여럿 있다. 전기로 보일려도 없는 집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여럿 있다. 더 신하고 무문관이라고 한 광반크기의 조그마한 방에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일년 혹은 삼 년 동안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하기도 한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묘향대에서 또는 무문관에서 수행하는 눈 푸른 스님이 생각난다.

대통령선거가 멀지 남지 않았다. 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어디선가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행자들이 있고 그들의 열망이 끊임이기만 한 세상의 욕망을 잠시 식하는 청량한 겨울바람이 되길 기원해 본다.

〈백련사 총무 스님〉

어느 더벅머리 청년이 전국의 산을 다니다 지리산 묘향대를 찾았다. 묘향대에 살고 있던 스님은 지독한 선승이었다. 외부 출입도 삼가고 드물게 찾아오는 등산객들로 호통을 쳐서 쫓아내는 분이다. 그런데 지쳐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 안쓰러워서일까! 스님은 이 청년을 하룻밤 머물게 했다. 칠후 같은 밤! 허름불에 의해 가물가물한 선승의 옛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스님이 묘향대에 오기 전에 이미 묘향대에서 10년간 공부를 하고 내려간 스님이 계셨다. 그 스님은 결혼생활을 하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 출가했다고 한다. 늦게 출가해

기고



박향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에이즈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나의 일, 가족의 일, 우리 이웃의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에이즈는 예방이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이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에이즈는 '현대판 흑사병' 또는 '성적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로 묘사되어 환자는 투병생활 자체도 고통이지만, 감염된 사실만으로도 주변사람들로부터 모진 냉대를 받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꼭 문란한 성 행위에 대해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편견이 에이즈 정복은커녕 올바른 치료조차 막는다. 에이즈 정복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에이즈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편견인 이유다.

에이즈는 그저 하나의 질병일 뿐이다. 당

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건강관리와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식사나 약수, 가벼운 운동 등의 일상생활을 같아하는 것만으로 감염이 되지도 않는다. 특별히 그들을 멀리하거나 달리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계 에이즈의 날 활동의 근본 목적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있다. 오해와 편견으로 현실을 왜곡하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위한 안건을 만들고 조직하며, 몇몇 국가들은 일주일 간의 캠페인을 벌인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에이즈의 날 활동을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하도록 돋는 행사를 여러 국가와 도시들이 주최하기도 한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편견이 에이즈 정복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에이즈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편견인 이유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례 선언문을 발표하며, 남아메리카와 브루나

이 같은 나라에서는 보건장관이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연례연설을 행한다.

세계적으로 5초에 한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10초에 한 명이 사망한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로 2011년도 12월 말 현재 8542명으로 실제로는 3~4배가 더 많은 3만5000여 명이 넘을 거라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질병으로 "감기보다 더 예방하기 쉬운" 에이즈(AIDS)는 예방이 최선책이다. 역학조사 결과 99.2%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질병인 만큼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와 국민이 건강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병은 주위에 알리라는 옛말'이 있듯이 주위에 적극 알리고, 우리 사회가 에이즈 감염인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감염인의 인권, 복지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에이즈 예방 및 퇴치의 가능성도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1차 의료기관 자살 예방 매뉴얼 체계화 시급

문에 병원을 찾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심정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의대 교수의 연구 결과로 더욱 명백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살자를 그냥 보낸 것이다. 즉 사전에 충분히 이들의 정신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한 일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의 정신적 문제와 충동적 자살유혹을 자각하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

식의 평계를 대면서 외연만 해온 게 아닌가. 연구 결과를 더 보면 1차 의료기관 의료인들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면 자살률을 연간 22%에서 많게는 7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자살의 여려 원인 중 우울증과 알코올, 약물의 사용이 가장 큰 위험인 자라고 한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과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80~90%는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우울증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환자의 67%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치료 비율은 떡 없이 낮다는 것이다.

사실 우울증 치료율이 낮은 것은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둘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울증을 기피하고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이 큰 문제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의료 단계에서 자살의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경청해 환자의 그런 자살충동과 욕구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함께 1차 의료단계에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병원간에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시설

우리가 현실화된 '실력 광주' 위상 추락

이제 '실력 광주'라는 말은 당분간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전국 최고였던 광주지역 고교 2학년의 국·영·수 등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를 해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력 향상도 우수 100 대교'의 지역별 분포 비율도 낮아졌으며,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오히려 높아져 '광주 학력'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장학금 교육감 취임 이후 우려했던 실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72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적은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초6학년과 고2학년은 국어·영어·수학 등 3과목을, 중3학년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이다.

광주 고2 학생들의 학력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의 경우 90.4%, 수학은 87.8%, 영어는 90.7%였다. 대시·도와 비교하면 국어는 2위, 영어 4위, 수학은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가 결과, 모든 과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고2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성적 저하는 무엇보다 급격한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장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고교에서 실시해 온 약간자율화 단축, 방학 중 자율학습 제한 등 지나칠 정도로 규제해온 게 사실이다.

장 교육감에 대해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나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장 교육감은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그것이 '실력 광주'의 명성을 되찾는 길이다.

행위다. 하물며 일글에 칼집을 한다는 건 '간접테러'이자 인격 모독과도 다를 바 없다. 현행 선거법상 흥보를 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죄로 다스리는 것도 선거의 중대성에 있다.

게다가 민주·인권의 도시라고 자칭하는 광주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를 갈망하면서 '안철수 현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게 광주가 아닌가.

특히 현수막 업글 훼손은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고, 전국적인 선거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